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5. 6.

CEPA Insight

- 김태흠 충남지사, 인도네시아에서 ‘충남 기업 세일즈’... “한·인니 공동 번영의 선두에 설 것”
- 코트라, 수라바야서 ‘K-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모색
- 인도네시아, 2026년 10월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 프라보워 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담... 보건, 디지털 인프라 관심
- 인도네시아 2분기 5% 성장 목표... 6월 5일부터 6대 경기 부양책 시행

■ 김태흠 충남지사, 인도네시아에서 ‘충남 기업 세일즈’... “한·인니 공동 번영의 선두에 설 것”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해 충남의 중소기업 기술력과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앞장섰다. 김 지사는 5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 충청남도 자카르타 기업인 포럼’에 참석해 충남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소개하고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현지 경제인, 교민 기업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충남도는 첨단 제조업,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내 기업들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으며,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과 업무 협약(MOU)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충남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기대감이 높아졌다.
-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긴밀한 신뢰 관계를 맺어왔으며, 2023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발효로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남의 혁신적 기술과 제품이 결합 된다면 양국 모두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는 이번 방문을 단순한

수출 상담을 넘어,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시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남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판로 개척이 본격화되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충남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도지사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충남도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5. 27.)

■ 코트라, 수라바야서 ‘K-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모색

- 코트라는 8~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5 인도네시아 K-스마트시티 로드쇼’를 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부산항만공사, ICT 기업 8곳이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지자체협회 총회와 연계해 포럼, 프로젝트 상담회, 시티 엑스포 한국관 운영 등이 진행됐다. 포럼에는 주요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엑스포에서는 7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도시화와 인프라 수요에 맞춰 스마트시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5. 19.)

■ 인도네시아, 2026년 10월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제정된 할랄제품보장법(UU JPH)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할랄 인증 대상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치약 등 모든 인체 사용 제품이 포함되며, 내국산과 수입산 모두 해당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8만 건 이상의 국내 화장품이 인증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준비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비용과 절차 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컨설팅 및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브랜드의 수출 확대는 물론,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전문가들은 할랄 인증이 글로벌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5. 20.)

■ 프라보워 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담... 보건, 디지털 인프라 관심

- 2025년 5월 7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마이크 로소프트 창립자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보건, 공공 디지털 인프라, 금융 포용성,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프라보워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에 대한 게이츠의 지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장관들도 동석해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5. 8.)

■ 인도네시아 2분기 5% 성장 목표... 6월 5일부터 6대 경기 부양책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2분기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6월 5일부터 6가지 주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7%로 집계돼 연간 국가예산 (APBN) 목표치인 5.2%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주요 정책 내용 :

1. **교통비 할인** - 항공, 기차, 선박 등 방학 기간 대중교통 요금 할인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최대 1억 1천만 명 대상
3. **전기요금 50% 할인** - 1,300VA 미만 전력을 사용하는 7,930만 가구 대상 요금 50% 감면
4. **사회 지원금 추가 배정** - 생필품 카드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30만 수혜 가구 (keluarga penerima manfaat, KPM)에 추가 지원금 지급
5. **임금보조금(BSU) 지급** - 월 급여 350만 루피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 1인당 60만 루피아 미만 임금 보조금 지원 계획
6. **산재보험료(JKK) 할인** - 노동집약 산업 종사자 대상

정부는 특히 6~7월 방학 기간을 소비 촉진의 핵심 시기로 보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SU 금액과 지원 범위가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중산층 전기요금 감면 확대와 비정규직 포함 등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 성장률 사수를 목표로 하나, 정책의 지속성 & 포용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6. 3.)



(출처 : 한인포스트)

2025 충청남도 자카르타 기업인 포럼.
[사진 : 충청남도 제공]

2025. 5. 26.



(출처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 전경
[사진 : 코트라 제공]

2025. 5. 19.



(출처 : 한인포스트)

식약청 불법 화장품 적발 기자회견

2024. 10. 24.



(출처 : 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빌 게이츠와 회담.
사진 : BPMI Setpres/Muchlis Jr

2025. 5. 7.



(출처 : 한인포스트)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